

중국, 한-중 투자환경 개선노력 강화

중국 상무부장, 정세균 산자장관에 천명 ... 한-중 FTA 체결도 촉구

정세균 산업자원부 장관과 보시라이(薄熙來) 중국 상무부장은 5월27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회담을 갖고 양국 간 교역 및 투자환경 개선 노력을 강화키로 합의했다고 산자부가 밝혔다.

산자부에 따르면, 보시라이 부장은 중국기업의 한국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한국의 노사 문제, 외국투자기업에 대한 우대조치 기준 완화, 장기 주재원 비자문제 등에 대해 한국측의 개선을 요청했다.

특히, 중국 상하이자동차가 투자한 쌍용자동차를 예로 들면서 한국에 대한 중국기업의 첫번째 대규모 투자인데 노동운동이 강력하고 임금인상 요구가 과해 걱정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정세균 장관은 문제가 있으면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전하고 우리 투자기업들이 중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정책 불일치 등으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의 개선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보시라이 부장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전향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양측은 2005년 한-중 정상회담시 합의된 한-중 통상협력 확대를 위한 17개 과제의 이행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양국간 무역투자정보망을 조속키 개통키로 하는 등 2012년 교역규모 2000억달러 달성 목표를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한중우호협회장인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은 5월25일 오후 서울 신라호텔에서 보시라이 중국 상무부 부장 일행과 양국 우호증진 및 경제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중국측에서는 보시라이 부장과 닝푸쿠이 주한 중국대사, 한국측에서는 박삼구 회장을 비롯해 한승주 전 외교통상부 장관, 문규영 한중경영인협회 회장, 김반석 LG화학 대표이사, 김신배 SK텔레콤 사장 등이 참석했다.

박삼구 회장은 환영사에서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이 달라진 중국의 정치, 경제 환경 속에서 순조롭게 적응해 활발한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면서 “방한기간에 양국의 경제협력 발전을 위한 많은 성과가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중우호협회는 양국 민간의 선린우호와 번영을 도모하기 위해 1982년 설립된 단체로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과학기술 등의 상호이해 증진 및 교류활동을 벌이고 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6/05/29>